

2022 열린인생 4.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다른 차원이 열린다.

1. 태도

리차드 포스터는 자신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현대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을 '표면적 믿음'이라 표현했다. '알음과 가벼움'으로 인식되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다. 그런데 이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통찰이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경제, 문화, 정치, 교육 등 코로나 이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마치 거대한 풍랑속으로 들어온 배들의 항해 같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가져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원래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 성장해왔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라. 가장 강력한 핍박속에서 교회의 생명력은 더 강해졌다. 순교를 각오한 그들의 신앙과 삶의 무게감은 상당하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순교를 각오한 그들의 신앙이 주는 영향력은 당대 최고권력 국가인 로마제국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역사는 고난이다. 6.25로 황무지가 된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2위를 다투던 한국의 역사와 한국교회는 함께 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운 상황속에서 기도했고, 교회를 세웠고 전도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선교의 중심축에 한국이 있다. 눈물과 땀의 희생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선배들의 신앙의 무게감은 상당하다.

얕으면 금새 바닥이 드러난다. 가벼우면 작은 풍랑에도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된다.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

'결국 태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 있는 내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얼마나 깊고 무게감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른 문제가 아니다. 너무 얕고 가볍기 때문이다. 특별히 처음 만났던 주님과 관계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얕은 깊이로 다가오는 세상의 파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광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고 광야로 부르신 목적은 분명하다. 추상적이고 표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드러내고 싶어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의 모든 문화가 실제적으로 차단이 되어야 했다. 차단의 장점은 집중이다. 관계는 집중할 때 깊어진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제로 베이스가 되는 곳이다. 보는 것, 듣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차단된 광야로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혼잡스럽게 들리지 않는다. 선명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해도 없다.

지금은 광야로 다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이유가 분명하다. 모든 사람이 새길을 찾고 있다. 교회도 새길을 찾고 있다. 옛 방법이 아니다. 새로운 길, 우리 주님의 길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사야 40:3]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길은 광야에서 준비되어진다. 그래서 광야로 가야 한다. 세상의 분주함과 섞인 마음들과 감정들이 다시 리셋 되어야 한다. 지금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듣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광야로 가야 한다.

[이사야 43:18-19] 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만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새일은 옛일이 아니다. 교회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다. 가정등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있을 수 있다. 방법은 새 일이 풀어야 한다. 하나님의 새일은 광야와 사막에서 나타난다.

광야에 길이 만들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강이 만들어진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다.

3.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아가서 4장이 참 중요한 장이다. 아가서 1~2장에 신랑을 만난 신부는 행복하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했기에 더 깊은 단계로 신부와 나아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신부에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한다. 그 신랑의 초청 앞에 신부는 머뭇거리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싫은 것이다. 이런 신부의 머뭇거림 앞에 아가서 3장에 보면 신랑은 사라진다.

[아가 3:1-3]1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2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3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신부와 신랑의 관계는 오직 침상이다. 그 침상을 벗어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 한 신부에게 어느날 신랑은 사라진다. 신부는 그 때 비로서 깨닫는다. 신랑이 없는 침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2절에 신부는 드디어 일어난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신부가 스스로 일어나는 장면이다. 그리고 안전지대였던 침상을 벗어나 성 안, 큰 길 같은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 마음에 사랑하는 오직 한 사람 신랑을 찾는다.

‘옛자아의 파쇄’ - 광야

바로 이 단계가 다음 차원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단계이다. 내면안에 있었던 옛 자아의 파쇄가 일어나는 장면이다. 예전에 안주하려 했던 자기 중심적 자아가 파쇄 되는 순간이 아가서 3장이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신부의 모습은 사랑스러운 것을 넘어 담대하다. 용기로 가득차 있다.

신랑의 부재의 공간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다. 그 광야에서 신부는 비로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신랑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엄청난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그런 신부에게 신랑이 나타난다. 그리고 변화된 신부를 칭찬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아가 4:12]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다. 덮은 우물이다. 봉한 샘이다. 동산은 일하는 곳이 아니다. 가든이다. (에덴과 같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정확한 이유가 에덴 동산이다. 사람과 교제하며 깊은 친밀감을 누렸던 은밀한 공간이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이다. (The place - 하마콤) 잠근, 덮은, 봉한은 외부와 차단되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신랑만을 위한 동산이요, 우물이요, 샘이다.

[민수기19:15]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곳에서 신부는 신랑과 예전보다 더깊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다. 그 동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아가 4:15]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샘 - 신부는 샘의 역할을 한다. 샘은 원천이다. 가장 중요한 물근원과 같은 곳이다.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터지는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일급수 샘이 솟아나는 것이다.

우물 - 우물은 비축된 물을 말한다. 과거의 삶으로 부터 지금까지 신부의 삶에 비축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생수와 같은 은혜가 신부의 삶에 우물처럼 풍성하다.

시내 - 외부로부터 흐르는 물이다. 영향력을 말한다. 신부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영향력은 시내처럼 흐른다. 겔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흘러 바다가 되어 온 땅을 덮은 것처럼 신부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영향력은 잔잔하지만 강하다.

4. 다른 차원이 시작되다.

[아가 4:16]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가서 4:16은 북풍 (고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 북쪽으로부터 불어오는 찬 바람)을 겪은 신부의 동산에 남풍이 불어온다. (남풍은 축복의 따뜻한 바람이다) 신부의 동산에는 두 바람이 함께 일어난다. 북풍과 남풍을 함께 경험한 신부의 동산에서 향기가 난다.

이 향기는 깊은, 짙은, 무게감이 있는 향기이다. 가볍지 않은 향기이다. 고난을 겪은 한국교회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고난을 겪은 인생은 그래서 결국 가볍지 않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나의 동산’의 깊은 향기로 인해 신랑(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주님의 동산’이 된다.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의 장소로 나아가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주님의 사랑 내 자신’이다. 다시 그 곳으로 나아가라. 새로운 차원에서 더 깊은 단계에서 기다리시는 주님과 만나야 할 때이다.